

마가복음 4장35 ~5장2절

설교자 : 이해운 목사

날 짜 : 2022년 4월24일 말씀

핵심말씀.

-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인 말씀은 밭에 뿌려지면 처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은 줄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마음 밭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점점 생명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잠4:18)(빌1:6)(벧전5:10) (엡4:15)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의 여정과 목표인 가나안 입성하는 과정)
-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씨 뿌려진) 제자들을 향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받은 크리스찬은 저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땅의 귀신들린 사람이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환경과 자아에 속박되어있는 문제들로부터 실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풍랑이는 배안에서 믿음을 훈련하셔야 했습니다. 그 환경들은 결국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신 8:1~10)(롬8:17) (딤후6:12)
- 광풍불고 파도가 뱃머리를 부딪히는 고난속에서 주님은 배 뒤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셨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믿음이 그 상황속에서도 실제로 믿음을 나타내는지를 보시면서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셨음. 밀려오는 파도의 문제들에 대하여 신자로써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눅 8:50) (요15:4)(갈2:20)

1.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가 나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 보자.
2. 내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과 동일하게 앞에서는 끊임없이 물결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묵상해 봅시다.
3.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를 각 자의 삶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